

-(으)ㄴ/는 고로

그러므로, 그런 까닭으로

원인을 나타내는 예스러운 표현입니다. 고는 한자 故(연고 고), 즉 ‘까닭’이라는 뜻이며, 고전의 논증문 한 구절처럼 읽힙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형용사	-(으)ㄴ 고로	그러하다 → 그러한 고로
동사	-는 고로	있다 → 있는 고로
ㄹ 받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고로
부사로	고로	고로 이와 같이 결론짓는다
찍어쓰기	고로는 찍어 씀	그러한 고로
현대의 대응 표현	-(으)므로	그러므로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는 -는 고로, 형용사는 -(으)ㄴ 고로를 씁니다. ㄹ 받침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고로는 찍어 씁니다.

이유를 나타내며, 다음과 똑같이 씁니다: -(으)므로. 예: 사정이 그러한 고로 부득이 연기하였다.

단독으로 쓰인 고로는 ‘그러므로’라는 뜻의 부사로, 그러므로처럼 문장 맨 앞에 옵니다.

예스럽고 논증적인 문체입니다. 고전 산문, 옛 법률 문서, 또는 의도적인 문체 효과에 씁니다. 현대 한국어에서는 므로나 때문에를 씁니다.

■ 예문

- 1 사정이 그러한 고로 부득이 일정을 연기하였다.
- 2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로 판단을 미룬다.
- 3 모두가 아는 고로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.
- 4 증거가 명백한 고로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.
- 5 손수 만드는 고로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.
- 6 뜻이 분명한 고로 다들 여지가 없다.

■ 비교

-(으)므로
현대의 대응 표현입니다. 므로는 표준 격식체이고, 고로는 예스러워서 고전 문체로 읽힙니다.
그러므로 연기하였다. (격식체) / 그러한 고로 연기하였다. (예스러움)

-(으)ㄴ/는 고로
둘 다 예스러운 표현입니다. 은측은 ‘사정이 이러하니’에 무게를 두며 발견을 전할 수도 있고, 고로는 순수하게 인과만 나타냅니다.
그러한즉 이해하시라. (사정이 이러하니) / 그러한 고로 연기하였다. (그런 까닭으로)

때문에
때문에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일상적인 인과 표현입니다. 고로는 옛 문체의 격식 있는 논증에 속합니다.
비 때문에 늦었어요. (구어) / 근거가 부족한 고로 미룬다. (논증)

■ 주의

- ✗ 손수 만들는 고로 값이 비싸다.
- 손수 만드는 고로 값이 비싸다.
- ㄹ 받침 어간은 관형형 체계의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사정이 그러한고로 연기하였다.
- 사정이 그러한 고로 연기하였다.
- 고로는 관형형 뒤에 찍어 씁니다.
- ✗ 야, 비 오는 고로 늦었어.
- 야, 비 와서 늦었어.
- 고로는 예스러운 논증 표현입니다. 대화에서 쓰면 학자 흉내를 내는 것처럼 들립니다.